

### ‘조선을 죽이다’

혜문 스님, 발견

문화재 제자리 찾기 혜문 스님(사진)이 자신의 해외 반출 문화재 찾기 과정을 중간 회향하는 저서 <조선을 죽이다>(동국대출판부)를 펴냈다.

스님은 2006년 일본 도쿄대가 소장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7권의 국내반환을 성사시켰고, 현재는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일본 황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72종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활동 중이다.



<조선을 죽이다>에서 스님은 명성왕후 모살과 관련한 직접적 자료인 ‘민후조락사건(閔后廵落事件)’과 ‘에이조 문서’의 정문을 수록했다.

‘민후조락사건’은 당시 명성왕후 살해에 직접 가담했던 한성신보사 편집장 고바야가와 히데오가 쓴 수기로, 일본에서는 명성왕후 모살 사건의 배경과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회고록으로 평가받는 다.

‘에이조 문서’는 일본에서 ‘조선왕비 능욕설’을 불러일으켰으나, 그동안 국내 학자들은 원문조차 입수하기 어려웠던 자료다.

‘에이조 문서’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조선정부 고문관이었던 이시즈카 에이조가 을미사변 다음날인 10월 9일 의고리언을 통해 본국에 보고한 최초의 공식문서다.

1964년 일본 역사학자 야마베 켄타로가 <코리아펜론> 10월호에 발표한 논문 ‘민비사건에 대해’에서 처음 소개했다.

혜문 스님은 “지금까지 ‘남인배들에 의해 명성왕후가 시해됐다’는 통념은 일본의 계획에 의해 일본인이 명성왕후를 살해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2)2260-3482

조동섭 기자

## ‘십현담요해’ 언해본 발견

### 국내 유일본 추정... 해인사 백련암 서고서 나와

성철 스님이 주석하던 해인사 백련암 서고에서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되는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언해본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백련암 장경각 서고를 정리하던 중 <십현담요해> 언해본(24.9cm×15cm, 44페이지, 10행 21자 형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십현담요해> 언해본은 16세기 전반에 드물게 언해된 선종 서적으로, 현재까지 문화재 서지 목록 등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휘귀본 내지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십현담>은 당나라 동안상찰(?-961) 선사 저술한 10가지 계승이다. 선사의 일종으로 정위에 안주하는 것을 부정하고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하는 선학(玄學) 등 10편으로 구성됐다. 불교 사상적으로는 선을 비롯해 법화·화엄사상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안종의 청량문의(885~958) 선사가 주석을 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매월당 김시습(1435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이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들여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1493)이 성종 6년(1475)에 주를 붙여 <십현담요해>를 지었다. 이번에 발견된 언해본은 김시습이 <십현담요해>를 저술한 지 73년이 지나 한글로 옮긴 것으로 명종 2년(1548) 강화도 정수사에서 판각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후 스님이 소장한 5000여 권의 장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됐다”며 “성철 스님이 작성한 도서목록에는 여러 권을 함께 <십현담>이라 적혀 있을 뿐 언해·요해라는 표현이 없어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병패 문화재청 서지 전문위원은 “백련암에서 발견된 <십현담요해> 언해본은 휘귀본에 속한다”며 “16세기 중엽 한글에서 사용된 반치음△과 꼭지○이 쓰이고 있어 국어사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유학자로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게 됐다.

원택 스님은 “이번 <십현담요해> 언해본 발견으로 김시습이 선서에 주석을 달았던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김시습의 불교관 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0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철 스님 열반 제16주기 추모 학술회의에서 <십현담요해> 언해본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의천의 균여 화엄사상 비판은 잘못”

### 한국사상사학회에서 고려대 이병욱 교수 주장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균여(923~973)의 화엄사상에 대한 비판은 잘못됐다.”

고려대 이병욱 외래교수는 9월 12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한국사상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 ‘의천의 균여화엄사상 비판의 정당성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천의 균여 비판은 다수의 학자들이 그 배경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며 고려불교의 대사전으로 불린다. 서울대 최병현 교수는 “의천이 균여 등을 비판한 이유는 균여의 사상

에는 관문(觀門, 관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목포대 최연식 교수는 “균여의 사상에 관법이 없지는 않았으나 의천이 그것을 관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학자 사토 아츠시는 의천이 균여를 비판한 이유로 균여와 의천의 교학 차이와 의천이 균여의 저술에서 출처가 불분명함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병욱 외래교수는 “의천은 균여를 관법을 닦지 않았음을 근거로 비판했으나, 균여는 관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균여는 저술인 <화엄경삼보장원통기>에서 부정관(不淨觀) 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수행법을 설명하며 지(선정)와 관(지혜)을 강조했다.

이 외래교수는 “균여는 선정(지)만을 닦고 지혜(관)를 닦지 않으면 완고한 어리석음에 떨어질 것이며, 지혜(관)만을 닦고 선정(지)을 닦지 않는다면 미친 지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욱 외래교수는 “의천이 균여가 관법을 닦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같고 달리 균여는 관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며 “의천이 균여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수월관음도 현존 최고 괘불화”

### 한국미술사연구소, 12일 제1회 괘불화 학술대회 개최

사람에서 아의 행사 때 괘불화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회화작품이다. 규모 뿐 아니라 구도와 형태, 색채감이 보여주는 높은 완성도는 예술적·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다.

괘불화의 시원은 고려 초기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괘불화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괘불화를 주제로 학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는 9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소강당에서 ‘괘불화의 성격과 의의’를 주제로 제1회 괘불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명대 소장의 기조발제 ‘한국 괘불화의 기원문제와 경신사장 김우련팔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윤은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김강중 동국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이 발표했다.



나불을 중심으로 5불로 표현되거나, 법신불 좌우에 삼세불의 좌우 불로 배치되는 형식 등 괘불의 도상은 다양하게 발전했다.

윤은희 연구원은 “괘불에서 보이는 법화와 화엄사상의 통합은 조선불교미술의 중요한 특징”이라 말했다.

#### #다불에서 삼세불로 정착

유마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주제발표 ‘다불 괘불화’를 통해 조선 후기 유행했던 다불(多佛) 괘불화에 대해 조명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조선 후기 괘불화는 유독 삼신삼세불의 변형이 많았고, 거대한 화폭에 다불이 그려진 괘불화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삼신삼세불 괘불화는 오불회(칠장사오불회)괘불화 1628년 조성, 부석사오불회 괘불화 1745년 조성, 사불회(부석사 영산



일본 큐슈 경신사에 보관된 수월관음도(위)와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아래 왼쪽), 윤은희 연구원.



삼신삼세불화 1684년 조성, 삼불회(칠장사영산삼신삼세불화 1710년 조성) 등으로 구분된다.

유마리 학예연구관은 “1628년 조성된 경기도 칠장사오불회괘불화로부터 미륵보살이 출현하기 시작한 1673년 조성된 장곡사미륵불괘불화 등에서는 미륵불이 본존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러말선조 이래 유행한 삼세불인 석가불·미륵불·아미타불, 석가불·미륵불·다보불, 또는 수기삼존불(석가불·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 등) 미륵불·보살이 포함된 삼세불과 조선조 후기 성행한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의 삼세불, 삼신불이 17세기 괘불화에 모두 등장해 다불 괘불화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이후 삼세불이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정착되면서 다불괘불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조동섭 기자

#### #괘불화의 시원은 고려시대

문명대 소장은 “괘불화는 고려시대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괘불화는 일본 큐슈 경신사에 보관 중인 고려 수월관음도”라 주장했다.

문 소장은 <삼국유사> 원종홍법편에 ‘법당(法堂)을 세우고 범경(梵經)을 매달았다(壓法幢 懸梵鏡)’는 기록을 설명하며, “법당”은 괘불화의 전신인 불화적 요소를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명대 소장은 “고려시대에는 불교재의식이나 법회가 빈번하게 행해졌다”며 “봉은사 연등회, 신효사 유란제 등 정기적으로 열렸던 재의식에 불화를 걸어 놓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러 문 소장은 “임란·호란을

#### #법화·화엄 사상 괘불로 표현

윤은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 ‘의식집을 중심으로 본 괘불화의 조성 사상’에서 “괘불 조성에는 <법화경> 사상이 중심됐고, 영산회상괘불이 가장 유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법화경>의 선적 요소가 강조되며 열회수지형 괘불 도상이 조성되고,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아 삼신불 괘불화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17세기 사원들이 중정(中庭) 중심의 가람구조를 형성하며 창건·재건되면서 시작된 통불교시대에는 삼신불과 삼세불이 비로자

견으며 비명횡사한 고혼들을 현장에서 위무하기 위한 재의식에 괘불화가 본격적으로 성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신사에 보관된 수월관음도는 419.5×254.2cm 크기로 비단채색됐다.

조동섭 기자

조동섭 기자

## 제7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시상 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지구촌 발전을 위한 불교라는 뜻으로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7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시상 부문 - 대상 : 승가 부문 1인, 상패 /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상패 /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상패 / 상금 1,000만원. - 불교미디어콘텐츠상 : 1인 혹은 1단체, 상패 / 상금 500만원 ~ 1,000만원. - 특별상 : 분야 구분 없이 약간 명칭, 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500만원.

◆수상자 선정 ① 대상 승가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부문 / 단체부문 및 특별상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불교미디어콘텐츠상은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기 위한 취지로 불교 진흥을 소재로 한 미디어콘텐츠(비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오디오 등)와 유서한 분야의 제작팀의 제작 결과물을 심사, 시상합니다. 단, 2009년도 순수 본인 창작물이야 하고, 외부 지원 등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합니다. 공모지는 방송물 및 영화, 인터넷 신문,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전시회, 기타 문화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합을 증명 시 심사해 참고합니다.

◆수상 후보 추천 접수 - 대상 (승가 / 재가 / 단체) 부문 ①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③ 70 ~ 80년대 이후 (약 한세대 이전) 작고한 분이라도 한국불교 현대화에 공헌했던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④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취지와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교미디어콘텐츠상 부문 ① 대원상 불교미디어콘텐츠상 부문 후보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작 결과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원상 대상 (승가/재가/단체) 부문 후보 추천서 - 대원상 불교미디어콘텐츠상 부문 후보 신청서.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 간 : 2009년 9월 21일(월) ~ 11월 11일(수).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우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③ 접 수 방 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료).

\* 2010년 제8회 대원상 시상부터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상 내용 등을 전면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병천

## 제39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가 여러 선후배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운문 도량에서 아래와 같이 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진 중 바쁘시더라도 운문사 모든 선후배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8일 오후 3시 (음력 8월 20일)
- 장 소 : 운문사 삼장원
- 안 건 : - 모교 발전에 대한 건 - 동문회 임원선출에 대한 건
- 전화번호 : 054)372-8800 (운문사 종무소) 054)383-5250, 017-508-7561 (동문회장)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명심 합장